

제1 교시

언어 영역

성명

수험번호

2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써 넣고, 또 수험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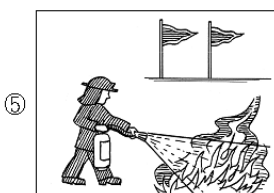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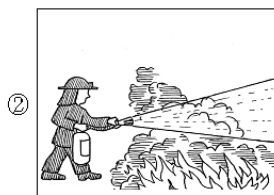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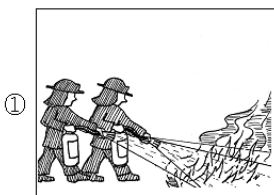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이 이야기의 교훈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노력하는 사람이 땅의 가치를 안다.
- ② 진실이 담긴 마음이 가장 큰 축복이 된다.
- ③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꿈을 이룬다.
- ④ 겸손한 자세는 진정한 인간 관계의 시작이다.
- ⑤ 남을 칭찬하는 사람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다.

2. (물음) 강의에서 설명한 소화기의 올바른 사용 방법이 아닌 것은?

[1점]



3. (물음) 남학생이 대답했을 상호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다있다 만물상
- ② 기리기 제과점
- ③ 균봉어 수족관
- ④ 엎마손 김밥집
- ⑤ 예쁜이 의상실

[4~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4. (물음) 진행자의 마지막 질문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아열대 기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 ② 아열대 기후로 변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 ③ 아열대 기후로 변하는 데에 따른 대책은 무엇입니까?
- ④ 아열대 기후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⑤ 아열대 기후로 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5. (물음) 이 좌담의 말하기 방식에 대해 바르게 말한 것은?

- ① 진행자는 비판적 질문을 하며 논의를 발전시키고 있다.
- ② 진행자는 상대방의 말을 요약·정리하며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③ 김 박사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내용을 쉽게 전달하고 있다.
- ④ 김 박사는 구체적 통계 수치를 들어 내용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 ⑤ 김 박사는 개인적인 일화를 제시하여 시청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이제 듣기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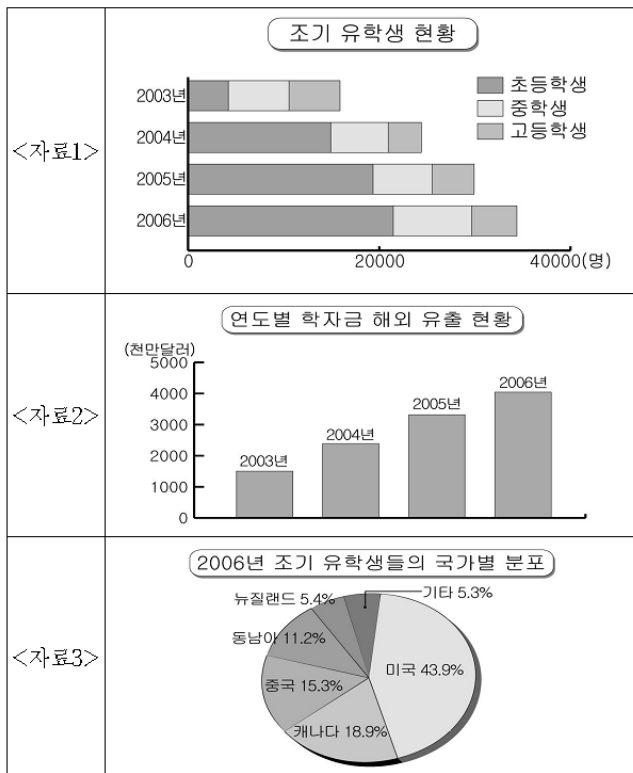
6. 다음 두 그림을 보고 이끌어낼 수 있는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자신만이 옳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 ② 불합리한 현실에 맞서는 자세가 요구된다.
- ③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그 나름의 가치가 있다.
- ④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 ⑤ 세상을 비판적으로만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7. '조기 유학'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료1> : 중·고등학생에 비해 초등학교 조기 유학 인원이 많다.
- ② <자료3> : 조기 유학이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 ③ <자료1> + <자료2> : 조기 유학생이 증가하면서 학자금의 해외 유출이 늘고 있다.
- ④ <자료1> + <자료3> : 조기 유학생 현황과 국가별 편중을 고려할 때, 조기 유학의 주된 목적이 영어 학습임을 짐작할 수 있다.
- ⑤ <자료2> + <자료3> : 편중된 유학은 영재 육성이라는 국가 정책과 상반된다.

8. '학교 축제의 활성화'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개요를 작성한 후 자기 점검을 해 보았다. 수정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I. 처음

학교 축제의 의미

II. 중간

1. 학교 축제의 문제점㉠
 - 가.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 운영.....㉡
 - 나.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율 저조
 - 다. 지나친 소비 중심적 행사
2. 학교 축제의 개선 방안㉢
 - 가. 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나. 학생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 강구
 - 다. 교육적·문화적 경험이 가능한 행사 기획
 - 라. 공연장 확보를 위한 지역 사회와의 연계㉣

III. 끝

학교 축제의 의미 강조 및 활성화 촉구㉤



	점검 사항	수정 내용
①	불충분한 내용은 없는가?	㉠의 하위 항목에 '축제를 위한 공연장 부족'을 넣어야겠어.
②	중복되는 내용은 없는가?	㉡은 삭제해야겠어.
③	하위 항목을 포괄하고 있는가?	㉢을 '학교 축제의 지역화 방안'으로 바꿔야겠어.
④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은 없는가?	㉣을 '지역 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한 학교 축제'로 바꿔야겠어.
⑤	논리적 일관성이 있는가?	㉤을 '학교 축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정책 마련 촉구'로 바꿔야겠어.

9. <보기>는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요약한 것이다. <보기>의 내용을 역으로 이용해서 반박하는 댓글을 쓰려고 할 때, 자연스럽게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제목】 새를 닮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는 새를 닮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 황새를 따라가다 다리가 찢어지는 뱀새처럼 자기 분수는 생각하지 못하고 잘난 사람을 덮어놓고 따른다. ○ 남의 등지에 알을 낳고 가 버리는 뺨꾸기처럼 자식을 방치하며 키운다. ○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참새처럼 자기 좋아하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한다. ○ 방금 벌어진 일도 쉽게 잊어버리는 까마귀처럼 자신의 책임을 망각한다. ○ 남의 말을 무조건 따라하는 앵무새처럼 주관과 소신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는다.	【제목】 새를 닮은 사람들을 위한 변론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본보기로 삼아 자신의 부족함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① ○ 자식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 부모가 자녀의 자립심을 길러주어야 한다..... ② ○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③ ○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④ ○ 모방과 변형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야 한다..... 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10. <보기>는 학교 신문에 올리기 위해 쓴 초고이다. 고쳐 쓰려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대지의 정기를 머금은 나뭇잎이 날로 ㉠푸르름을 더해 가는 지난 5월 중순, 우리 학교 2학년 학생들은 △△수련원에서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몸과 마음을 닦는 수련 활동을 했다. ‘튼튼한 몸, 건강한 마음, 하나되는 ○○인’이란 구호 아래 400여 명의 건아들이 자연의 혜택을 맘껏 누리며 심신을 수련했다. 평소 학교에서 체험하기 힘든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우의를 다졌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불굴의 정신을 길렀다. ㉢그렇지만 ‘10km 야간 산악 행군’은 이번 수련 활동의 백미였다. 이 프로그램은 캄캄한 밤에 10km나 되는 산길을 걸어야하기 때문에 협동심과 강인한 정신력을 필요로 했다.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완수하면 군대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 2학년 학생 전원이 서로 돕고 이끌어 한 명의 ㉤낙오자나 탈락자 없이 이 활동을 마쳤다.	

- ① ㉠은 어법에 맞게 ‘푸름’으로 바꿔 써야겠어.
- ② ㉡은 문장 호흡을 위해 ‘불굴의 정신이 길러졌다.’로 고쳐 써야겠어.
- ③ ㉢은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특히’로 바꿔야겠어.
- ④ ㉣은 글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해야겠어.
- ⑤ ㉤은 의미가 중복되므로 ‘낙오자나’를 생략해야겠어.

11. 맞춤법에 관한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옳은 것은?

※ 밑줄 친 어휘가 맞춤법에 맞으면 ○, 틀리면 × 하시오.	
㉠ 생선을 간장에 <u>줄인다</u> .	()
㉡ 그는 광주를 <u>견혀</u> 제주도로 돌아왔다.	()
㉢ 그녀의 행동은 <u>눈살</u> 을 찌푸리게 한다.	()
㉣ <u>녹슬은</u> 철모 하나가 처량하게 놓여 있었다.	()
㉤ <u>내로라</u> 하는 사람들은 모두 회의에 참석했다.	()

	㉠	㉡	㉢	㉣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12. 다음 자료를 근거로 할 때, ‘만’의 띄어쓰기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자료1>

한글 맞춤법 제5장 띄어쓰기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자료2>

만¹

㉠ ㉡ (주로 ‘만에’, ‘만이다’ 꼴로 쓰여) 동안이 얼마간 계속되었음을 나타내는 말.

만²

㉠ ㉡ ① 앞말이 뜻하는 동작이나 행동에 타당한 이유가 있음을 나타내는 말. ② 앞말이 뜻하는 동작이나 행동이 가능함을 나타내는 말.

만³

㉠ ①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보조사. ② (‘하다’, ‘못하다’와 함께 쓰여) 앞말이 나타내는 대상이나 내용 정도에 달함을 나타내는 보조사.

- ① 도대체 이게 얼마 만인가.
 ②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겠어요.
 ③ 여기 주먹 만한 감자들 좀 봐.
 ④ 보기만 해도 마음이 흐뭇하다.
 ⑤ 그가 그러는 것도 이해할 만은 해.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 평도 채 안 되는 구멍가게는 증풍으로 쓰러져 정상적 건강 상태가 아니었던 아버지의 유일한 수입원이자 생존 이유였다. 때문에 그 구멍가게에 대한 아버지의 몰두와 자존심은 각별했다.

한번은 내가 아버지가 가게를 잠깐 비운 사이에 곁에 허연 인공 설탕가루를 묻힌 ‘미키대장군’이라는 캐러멜을 하나 아무 생각 없이 널름 집어먹은 적이 있었다. 하나에 이원, 다섯 개에 십원이었다. 잠시 뒤에 돌아온 아버지는 단박에 그 사실을 알아채고는 불같이 화를 내며 내 목덜미에 당수를 한 대 세계 내려쬘 것이었다. 그 캐러멜갑 안에 미키대장군이 몇 개 들어 있는지조차 흰히 꿰차고 있는 아버지였다.

「 이런 민한 종간나래! 암생이처럼 가려케 쓸라닥질을 허
 [A] 자면 이 가게 안에 뭐이가 하나 제대로 남아나겠니, 웅? 」

그리고 나서는 좀 머쓱했는지 입이 한 발췌 튀어나와 뽀로통해서 서 있는 내게 미키대장군 네 개를 집어 내미는 거였다. 어차피 짝이 맞아야 파니까니, 하면서 억지로 내 손아귀에 쥐어주었다. 나는 그 무허가 불량식품인 캐러멜

네 개가 끈끈하게 녹아내릴 때까지 먹지 않고 췌 채 서 있었다.

(중략)

한 닷새쯤 지났을까, 아버지와 나는 다시 그 수도상회로 물건을 때려 갔다. 아버지는 또 고만고만한 물건들로 구색을 맞춰 골랐고 흑부리영감은 일일이 헤아린 다음 우리 부자가 가져온 정부미 자루에 집어넣으라고 손짓을 했다. 아버지와 나는 허겁지겁 물건들을 자루에 휩쓸어 담았다. 평소와 달리 아버지의 손은 약간 떨려서 헛손질을 많이 해 일부러 나한테 휘방질을 놓는 사람 같았다.

내가 그 이유를 모를 리가 있겠는가. 아버지는 그 흑부리영감의 눈을 속여 미리 진로소주 두 병을 은밀히 자루에 더 넣어두었던 것이다. 셈을 치르고 문턱을 가까스로 나서려는 순간, 이게 무슨 운명의 조화런가, 흑부리영감이 우리를 불러세우는 것이었다.

거 영감, 이보우다. 그 포대 좀 풀어 다시 한 번 헤아려 봅세. 계산이래 안 맞아.

나는 그때 겁에 질린 송아지처럼 눈에 흰자위가 유난히 많아진 아버지의 눈동자를 지금도 똑똑히 기억한다. 아버지는 어린 아들인 내가 무슨 구세주라도 돼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눈으로 내 얼굴을 쳐다봤던 것 같았다. 그러나 난들 달리 뽀족한 수가 있을 턱이 없지 않은가.

결국 흑부리영감은 두 병이 더 들어간 것을 밝혀냈고 아버지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나는 내가 희생양이 돼야 함을 느꼈다.

예, 맞아요. 그건 말예요, 제가 영감님 몰래 넣은 건데요…… 왜냐하면 접때접때 우리 집에서 사실 두 병을 빠뜨리고 갔기 때문에 웅, 췌췌이어서요……

나는 이상하게도 맘이 편하고 당당했다. 나도 모르게 입가로 번져 나온 미소를 단속하느라 손바닥으로 입을 몇 번 인가 틀어막기도 했다. 흑부리영감은 얼굴에 별다른 표정을 짓지 않고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일단 직접적 책임을 모면한 아버지는 해설픈 표정으로 날 쳐다 볼 뿐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흑부리영감이 당신과는 이제 거래 끝이야 하고 선언할까 봐 ㉠ 하는 얼굴이었다. 아버지처럼 이복 출신인 그 영감은 시장통에서 신용 하나는 보증수표나 다름없었지만 성질이 불같고 매물차기로 소문이 자자한 위인이었기에 그런 상황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었다.

내래 이까짓 걸루다 당신하고 거래를 끊지는 않잖어. 다물정 모르는 아이들이 저지른 짓인데 으잉?

아유, 고맙습네다 영감님. 그저 어떻게 헤헤…… 우리 아이가 평소에는 그렇게 민한 애가 아닌데 어찌다……

단……

흑부리영감이 아버지의 말끝을 가로챘다.

내 앞에서 저 아이를 호되게 가르치는 꼴을 뵈 주라우. 내가 그깟 술 두 병이 아까워서 기러는 게 아니야. 하지만 기렇게 파끔하게 가르치는 건 바로 자식에게 말이야, 부모된 도리를 다하는 것 아니잖습매? 내 이 자리서 이척이 하는 껌냥을 두고보고서리 까짓것 그 술 두 병은 거저라두

주잖아. 내 이제껏 남한테 콩알 반쪼가리도 거저 준 적은 없지만서도, 이런 경우가 다르다우 아암.

호되게라든…… 어떻게?

쯔쯔, 이 녀도 함경도 아바이 출신이든 자식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드러케 다루는지는 알 만하잖소? 그걸 왜 내게 묻소 으응? 아 안 그렇소?

[A] 야! 간나야. 니 다시는 이런 민한 짓이래, 하겠니, 안 하겠니? 어서 말 좀 해 보라우.

짐짓 호령을 하는 아버지의 손이 부들부들 떨며 허공 높이 허우적거렸다. 단 한 대에 내 뺨은 무섭게 부풀어오르며 감각을 잃어갔다.

길티…… 기게 바로 진짜 교육이야.

흑부리영감의 격려를 받은 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그에게 굶신거린 다음 또 한 차례 내 뺨을 기세 좋게 올려붙였다. 그러나 이 지독한 연극을 지켜보면서 나는 아픔을 거의 느끼지 못했던 것 같다. 머릿속에서 뭔가가 맑아지는 느낌뿐이었다. 그리곤 투시해 버리고 말았다. 어린 나이에도 아버지의 눈 속에 흐르지도 못하고 피어 있는 눈물을. 차라리 죽는 한이 있어도 애비라는 존재는 되지 말자. 아마도 나는 그때 그런 끔찍한 다짐을 했는지도 모른다.

- 김소진, 「자전거 도둑」 -

13.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건의 관찰과 서술 시간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 ② 구체적인 소재를 통해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독백적 어조로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방언을 활용하여 인물을 사실감 있게 형상화하고 있다.
- ⑤ 사건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평가를 독자에게 맡기고 있다.

14. [A], [B]의 발화가 갖는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표출된 부자간 갈등이 [B]에서 해소된다.
- ② [A]에서 드러났던 아버지의 권위가 [B]에서 무너진다.
- ③ [A]에서 보여 줬던 구멍가게에 대한 아버지의 집착이 [B]를 전환점으로 사라진다.
- ④ [A], [B] 모두 아버지가 ‘나’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있음을 암시한다.
- ⑤ [A], [B] 모두 부당하게 억눌려 살아온 아버지의 과거를 유추하게 한다.

15.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전전궁궁(戰戰兢兢)
- ② 노발대발(怒發大發)
- ③ 동분서주(東奔西走)
- ④ 우왕좌왕(右往左往)
- ⑤ 의기양양(意氣揚揚)

16. 위 글을 영화로 제작하기 위해 주요 장면을 다음과 같이 그려 보았다. 제작 회의 과정에서 오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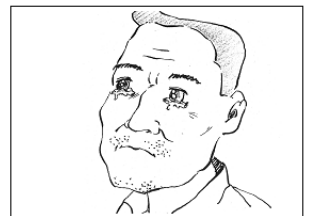
<장면 1>



<장면 2>



<장면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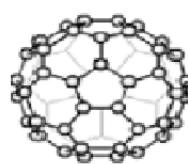


<장면 4>

- ① 사건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배열하면 ‘<장면 2> → <장면 3> → <장면 1> → <장면 4>’가 되겠군.
- ② <장면 1> 앞에 주저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대비되는 단호한 흑부리영감의 표정을 삽입하면 좋겠어.
- ③ <장면 2>에서는 물건을 담는 나의 행동을 방해하는 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클로즈업해야겠어.
- ④ <장면 3>에서는 극적 긴장감을 높이기 위한 효과음을 사용하면 어떨까?
- ⑤ <장면 4> 다음에는 아버지의 얼굴 위에 어른이 된 나의 얼굴을 오버랩시키며 장면을 전환하면 어떨까?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과학의 세계에서는 1985년 이전까지만 해도 탄소 동소체(同素體)*에 다이아몬드, 흑연, 숯만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스몰리와 켈, 크로토는 헬륨 가스 안에서 흑연에 레이저 광선을 쏘아 주었을 때 생기는 새로운 검은색 분말에 주목했다. 그들은 이 물질을 분석하여 흑연이나 다이아몬드와는 전혀 다른 탄소 원자 60개로 이루어진 분자(C₆₀)라는 것을 알아냈다.



처음에 그들은 분리해 낸 새로운 탄소 분자의 구조를 몰라 고심했다. 그러다 우연히 어느 건축 박람회장*에 전시된 축구공 형상의 건축물을 보고 영감이 떠올랐다. 그것은 미국의 건축가 백민스터 플러가 몬트리올을 만국 박람회를 위해 설계한 육각형과 오각형이 섞인 둥근 돔 모양의 구조물이었다. 그들은 종이를 육각형과 오각형 모양으로 오려 붙여 축구공 모양을 만들어 냈

고, 그 60개의 꼭지점에 각각 한 개씩의 탄소 원자를 배열함으로써 드디어 플러렌의 구조를 밝혀냈다. 12개의 오각형과 20개의 육각형으로 되어 있으며, 각각의 오각형이 완벽하게 육각형에게 둘러싸인 축구공 모양의 탄소 분자가 새롭게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그래서 새로 발견한 탄소 60분자를 건축가의 이름을 따 플러렌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 뒤 여러 실험을 통해 플러렌의 구조가 과학적으로 밝혀져 이들의 가설이 맞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60개의 탄소 원자로 이루어진 플러렌은 독립적이고 완전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축구공 모양을 하고 있으며 흑연, 다이아몬드 처럼 탄소 원자만으로 이루어진 안정된 물질이다. 플러렌은 실험실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자연계에도 아주 적은 양이 존재하고 있고 운석 조각에서도 추출되었다는 보고도 있다.

플러렌은 대칭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다이아몬드를 능가하는 단단함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온과 고압에도 견딜 수 있다. 또한 특이한 전기적 반응을 일으키는데, 다른 물질과 어떻게 결합했는가에 따라 도체·반도체·초전도체의 기능을 한다. 텅 비어 있는 플러렌 내부에 약 성분을 넣어 인체 내의 특정 기관으로 전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플러렌의 특징은 나노 기술의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는 플러렌에 방사성 원자를 다져 넣어 암도 치료하고 질병도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1993년 우크라이나의 그리고리 박사는 플러렌에 넣은 약의 성분이 물속에서 더욱 강화된다는 것을 알아내고, 극소량의 플러렌 수용액을 암에 걸린 쥐에게 주입하여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그 밖에도 플러렌은 응용 가능성이 매우 넓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스몰리 등은 플러렌을 발견한 공로로 1996년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

*동소체 :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분자식이 서로 다른 물질

17. 위 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플러렌의 두 얼굴 - 발견되었지만 뒤늦게 인정받아
- ② 탄소가 만들어 내는 신비 - 플러렌의 다양한 구조 밝혀져
- ③ 탄소 형제의 재발견 - 플러렌 발견자들, 노벨 화학상 받아
- ④ 작은 차이가 만든 큰 발견 - 탄소의 진정한 발견자는 스몰리
- ⑤ 축구공 모양의 탄소 분자 - 플러렌 발견으로 나노 세상 열어

18. ‘플러렌’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보 기>

- | | |
|----------------|----------------|
| ㄱ. 산화가 잘 됨 | ㄴ. 물에 잘 녹음 |
| ㄷ. 구조가 단단함 | ㄹ. 고열에 잘 견딤 |
| ㅁ. 대칭 구조로 이루어짐 | ㅂ. 자연계에 다량 존재함 |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ㅂ
- ④ ㄴ, ㄹ, ㅂ ⑤ ㄷ, ㄹ, 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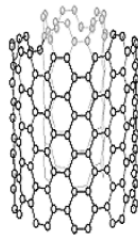
19. ‘플러렌의 구조’ 발견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과학적 고심 → 우연한 계기 → 과학적 성과

- ① 금으로 된 왕관에 은이 섞였는지를 알기 위해 연구하던 아르키메데스는 목욕 중 욕조에서 넘치는 물을 보고 부력의 원리를 알아내었다.
- ② 행성 궤도에 대해 골몰하던 케플러는 스승 티코 브라헤가 남긴 관측 자료를 분석한 끝에, 스승의 관점과는 다른 케플러의 법칙을 수립하였다.
- ③ 화농균 배양 실험을 하던 플레밍은 날아든 곰팡이 때문에, 유독 한 배양 접시에서만 화농균이 자라지 못하는 것을 보고 페니실린을 찾아내었다.
- ④ 벤젠 구조를 밝히려 고민하던 케쿨러는 꾸벅꾸벅 졸다가 뱀들이 서로 꼬리를 물고 빙빙 도는 꿈을 꾸고 영감을 얻어 벤젠의 고리 구조를 입증하였다.
- ⑤ 전류에 대해서 연구하던 외르스테드는 도선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실험 강의 도중 근처에 있던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것을 우연히 보고 전자기 현상을 알아내었다.

20. 위 글의 ‘플러렌(A)’과 <보기>의 ‘탄소나노튜브(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1991년, 일본의 이치마 박사는 서로 다른 물질을 합성하던 중 흑연 전극에 붙어 있는 미지의 검은 물질을 발견했다. 이 물질이 바로 나노 기술의 핵심으로 부각되는 탄소나노튜브이다. 탄소나노튜브는 지름이 몇 나노미터밖에 안 되는 매우 미세한 대롱 형태의 튜브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림과 같이 하나의 탄소 원자가 3개의 다른 탄소 원자와 결합된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탄소 원자가 육각형 벌집 무늬를 이루고 있다. 육각형 모양을 가진 그물을 원통형으로 둥글게 말면 나노 튜브 구조가 된다. 이 때 그물을 어떤 각도로 마느냐 또는 튜브의 지름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전기적 도체가 되기도 하고, 반도체가 되기도 한다.

- ① A와 B는 신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 ② A와 B는 탄소 동소체(同素體)이다.
- ③ A와 B의 원자 결합 구조는 다르다.
- ④ A와 B의 발견은 건축물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다.
- ⑤ A와 B는 조건에 따라 도체가 되거나 반도체가 되기도 한다.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스카 와일드의 대표적 동화인 「행복한 왕자」가 출간되었을 때, 당시 평단(評壇)은 그를 안데르센에 견주어 평가하였다. 이같은 주목을 받았던 「행복한 왕자」의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자. 어느 도시에 많은 보석으로 치장되고, 금으로 만들어진 왕자의 동상이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동상을 ‘행복한 왕자’라고 불렀다. 우연히 동상에서 쉬려던 제비는 왕자의 부탁으로 동상에 붙어 있는 보석들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준다. 결국 제비는 왕자의 심부름을 하다가 남쪽으로 날아가지 못하고 왕자의 발밑에서 죽고 만다. 이렇게 보면 「행복한 왕자」는 남을 위해 희생하는 이타주의의 도덕적 교훈을 담고 있는 동화다. 하지만 행복한 왕자의 이야기는 이런 내용만 담고 있을까? 이 작품의 주인공은 과연 행복한 왕자일까? 이 물음에 답해 보자.

「행복한 왕자」를 읽으면서, 와일드가 이 작품에서 그리고 있는 두 가지 상반된 이미지를 머리에 떠올려 보도록 하자. 도시의 한편에는 하늘 높이 솟아 있는 기둥 위에 황금과 보석으로 치장된 왕자의 동상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 변두리에 사는 상처투성이 손의 재봉사와 병든 아들, 너무 굶어서 정신을 잃고 책상에 엎드려 있는 ㉠젊은 희곡 작가, 길모퉁이에서 흑한에 떨고 있는 ㉡덴발의 성년 팔이 소녀가 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이미지를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 그것은 ‘단절’이다. 즉 모든 소통의 부재(不在)이다.

부유한 세계와 가난한 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완벽한 단절은 갈등조차 유발하지 않는다. 두 세계 사이에 있는 것은 서로에 대한 무관심이다. 그것은 무거운 침묵의 이미지로 이야기 전체를 억누르고 있다. 적어도 쾌활하고 진솔한 성격의 제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제비의 등장은 이런 이미지를 순식간에 바꾸어 놓는다. 단절의 고통을 느끼면서도 발이 동상 받침대에 단단히 붙어 어찌할 수 없는 ㉢‘불행한 왕자’와 세상과 단절된 채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사이를 제비는 기꺼이 연결해 준다. 제비는 거울을 맞아 일어 죽을 때까지 이 암울한 상황에 ‘소통의 다리’를 놓음으로써 두 세계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놓는다. 그래서 불행한 왕자도 ㉣‘행복한 왕자’가 되었고 사람들도 행복해졌다.

소통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는 불행하며, 그 불행과 불행 사이에는 절대 무관심이 도사린다. 반대로 소통이 존재하는 세계는 행복하며, 그 행복과 행복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관심이 존재한다. ㉤제비의 희생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단절된 두 세계 사이의 소통을 완성해 놓고 죽음을 맞는 제비는 어찌 보면 달관한 철학자 같다.

‘소통의 철학’은 20세기 철학의 중심 과제이기도 했다. 철학이 소통의 문제를 주요 과제로 삼은 것은 갈등조차 없이 무관심으로 단절된 현대인의 삶에 ‘관계’를 ㉥조성(造成)하려는 노력의 한 부분이었다. 그렇다면 21세기에 사는 우리는 소통의 메신저가 필요 없을 만큼 스스로 사회 속 타인들과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을까?

21. 위 글을 쓰기 위한 글쓴이의 구상 과정을 생각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철학의 문제를 보다 쉽고 친근하게 풀어서 설명해야겠군.
- ② 스스로 묻고 거기에 답하면서 논지를 전개해 나가야겠어.
- ③ 동화 「행복한 왕자」에 대한 일반적 해석에 의문을 제기해야지.
- ④ 구체적인 체험에서 우러나온 사례를 제시하여 독자에 대한 설득력을 높여야겠어.
- ⑤ 의문형으로 글을 마무리함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바를 다시 한 번 환기시켜야겠군.

22. 다음은 공익광고의 한 장면이다. ㉠~㉤ 중, 연탄천사와 그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연탄은행, 알고 계세요?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저축하는 곳이에요.
생각해 보면 나눔만큼 쉬운 일도 없어요.
연탄천사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정성스럽게 전달해 드려요.
나눌 수 있는 만큼만 나누시면 되거든요.

- ㉠ ㉠ ㉡ ㉡ ㉢ ㉢ ㉣ ㉣ ㉤ ㉤

23. 문맥적 의미를 고려할 때, ㉠ : ㉡의 관계와 다른 하나는? [1점]

- ① 지속하다 : 그치다 ② 이동하다 : 옮기다
- ③ 영리하다 : 똑똑하다 ④ 유쾌하다 : 즐겁다
- ⑤ 민첩하다 : 재빠르다

[24~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별목정정(伐木丁丁)*이랬거니 아람도리 큰 술이 베어짐죽도 하이 골이 울어 메아리 소리 찌르렁 돌아옴죽도 하이 다람쥐도 쫓지 않고 멧새도 울지 않아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눈과 밤이 종이보다 희고너! 달도 보름을 기다려 흰 뜻은 한밤 이 골을 걸음이란다? 웃절 중이 여섯 판에 여섯 번 지고 웃고 올라간 뒤 조찰히* 늑은 사나이의 남긴 내음새를 줍는다?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심히 흔들리우노니 오오 견디란다 차고 울연(兀然)히*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산 속 겨울 한밤대—

— 정지용, 「장수산 1」 —

*별목정정(伐木丁丁): 커다란 나무가 베어질 때 나는 소리

*조찰히: 아담하고 깨끗하게

*울연(兀然)히: 홀로 우뚝하게

(나)

손 흔들고 떠나갈 미련은 없다.
머칠째 청산(靑山)에 와 발을 뿌니
호리던 산(山)길이 잘 보인다.
상수리 열매를 주우며 인가(人家)를 내려다보고
쓰다 둔 편지 구절과 버린 칫솔을 생각한다.
남방(南方)으로 가다 길을 놓치고
두어 번 허우적거리는 여울물
산 아래는 매까치들이 몰려와
모든 야성(野性)을 버리고 들 가운데 순결해진다.
길을 가다가 자주 뒤를 돌아보게 하는
서른 번 다져 두고 서른 번 포기했던 관습(慣習)들.
서(西)쪽 마을을 바라보면 나무들의 잔 숨결처럼
가늘게 흩어지는 저녁 연기가
한 가정의 고만의 양식으로 피어 오르고
생목(生木) 울타리엔 들거미줄
덴살 비비는 돌들과 함께 누워
실로 이 세상을 알아 보지 않은 것들과 함께 잠들고 싶다.
— 이기철, 「청산행」 —

(다)

홀로 앉아 찾아오는 손님도 없이 獨坐無來客
빈 뜰엔 비 기운만 어둑하구나. 空庭雨氣昏
㉡물고기가 흔들리는 연잎이 움직이고 魚搖荷葉動
까치가 밟았는가 나뭇가지가 흔들린다. 鵲踏樹梢翻
거문고 젓었어도 줄에서는 소리가 나고 琴澗絃猶響
화로는 싸늘한데 불씨는 아직 남아 있다. 爐寒火尙存
진흙길이 출입을 가로 막으니 泥途妨出入
하루 종일 문을 닫아걸고 있으리. 終日可關門
— 서거정, 「독좌(獨坐)」 —

24.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나)에는 화자가 바라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② (가), (다)에는 일상적 삶에 대한 반성이 나타나 있다.
- ③ (나), (다)는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다.
- ④ (가)~(다)는 모두 방황을 통해 얻은 마음의 평화를 노래하고 있다.
- ⑤ (가)~(다)는 모두 현실 속에서 과거가 갖는 의미를 성찰하고 있다.

25. (가)와 (나)를 비교·감상해 보라는 수행평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 비교 내용	(가)	(나)
시적 공간	장수산	㉠
화자의 내적 갈등	㉡	㉢
화자의 대응 태도	㉣	㉤

- ① ㉠ : 순수한 ‘청산’을 시적 공간으로 삼고 있다.
- ② ㉡ : ‘장수산’의 적막 속에서도 여전히 내적 고뇌가 일고 있다.
- ③ ㉢ : ‘청산’을 동경하면서도 현실에 대한 미련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 ④ ㉣ : 자연 속에서 번뇌를 극복하고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 ⑤ ㉤ : 일상의 고뇌에서 벗어나 자연과 합일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낸다.

26.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모두 화자의 공허한 감정을 자연물에 이입하고 있다.
- ② ㉠, ㉡ 모두 화자의 내면 풍경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 ㉡ 모두 화자의 미묘한 정서적 동요를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현실의 모순을 담담한 어조로, ㉡은 격정적 어조로 말하고 있다.
- ⑤ ㉠은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것으로, ㉡은 구체적인 것을 추상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27. <보기>는 (가)를 자료로 한 수업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 글쓰기’를 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 선생님 : 다음은 (가) 시의 시상 전개를 도식화한 것입니다.

공간을 통해 환기된 이미지

=

인물로부터 얻은 느낌

↓

내면화

이제, 이 시의 전개 방식을 사용하여 한 편의 글을 써 봅시다.

- ① 살구꽃이 핀 산길을 걸으며 앞날에 대해 생각했다. 좁아진 사회 진출의 기회, 서로를 견제하는 주변 사람들의 눈초리, 나 혼자서 갈 수 있는 길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다시금 살구꽃의 상큼한 냄새가 내 코끝을 스쳤다. 그래, 인생은 혼자 가야 하는 길이 아닌가.
- ② 패스트푸드점은 연일 만원이다. 할머니 손을 잡고 패스트푸드점에 온 꼬마는 능숙한 솜씨로 감자튀김과 햄버거를 주문한다.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은 지폐를 꺼내 음식 값을 지불하고 자리로 간다. 자리에 앉아 꼬마의 등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할머니의 얼굴에 그늘이 진다.
- ③ 무거운 다리를 끌고 버스에 오른다. 앉아 있는 사람, 서 있는 사람, 모두가 피로에 치진 얼굴로 무심히 버스의 흔들림에 몸을 맡기고 있다. 그때 한 아이가 신기한 듯 창밖을 바라보며 엄마에게 연신 질문을 해댄다. 아이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답을 건네는 엄마의 목소리. 버스 가득 웃음이 넘친다.
- ④ 뻣뻣한 도심의 빌딩 숲, 노트북을 든 사람들이 차가운 대리석 복도를 지나 사무실로 들어간다. 복도 끝 먼 곳에서 늙은 청소부는 정성껏 얼룩을 지운다. 스쳐 지나가는 양복 입은 사람에게 인사하는 청소부의 얼굴 가득히 퍼지는 미소. 참 따뜻하다. 그런데 사람으로 가득한 이곳에서 사람이 그리운 것은 왜일까?
- ⑤ 시골 간이역에서 기차를 기다린 일이 있다. 창밖에는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역 안에는 빠알간 온기를 내며 타는 나무 난로가 있었다. 그때 간이역 역장이 하얗게 눈을 덮어쓰고 나무 한 아픔을 안고 들어왔다. 그래, 차갑고 추운 겨울에도 따스한 마음이 있기에 겨울을 날 수 있는 것일……. 나무 난로의 온기가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28. (다)에 표현된 시어와 시구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홀로 앉아’, ‘빈 뜰’은 화자의 현재 상황을 드러낸다.
- ② ‘비 기운’은 화자의 외로운 정서를 심화시킨다.
- ③ ‘화로’는 구속에서 벗어나려는 화자의 의지를 상징한다.
- ④ ‘진흙길’은 화자의 뜻을 펼 수 없게 하는 장애물을 의미한다.
- ⑤ ‘달아걸고 있으리’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화자의 자세를 나타낸다.

[29~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휴대전화기를 새 것으로 바꾸기 위해 대리점에 간 소비자가 있다. 대리점에 가면서 휴대전화기 가격으로 30만원을 예상했다. 그런데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니 가격이 25만원이라고 하였다. 소비자는 흔쾌히 구입을 결정했다. 그러면서 뜻밖의 이익이 생겼음에 좋아할지도 모른다. 처음 예상했던 휴대전화기의 가격과 실제 지불한 금액의 차이, 즉 5만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는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소비자 잉여(消費者剩餘)’라고 부른다. 어떤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가격에서 실제로 지불한 가격을 뺀 차액이 소비자 잉여인 셈이다. 결국 같은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하면 할수록 소비자 잉여는 커질 수밖에 없다.

휴대전화기를 구입하고 나니, 대리점 직원은 휴대전화의 요금제를 바꾸라고 권유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서비스보다 기본요금에 조금 더 비싼 대신 분당 이용료가 싼 요금제로 바꾸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소비자는 지금까지 휴대전화의 요금이 기본요금과 분당 이용료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 왔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건 정말 특이한 가격 체계였다. 동네 중국집에서는 입장료를 따로 내지 않고, 먹은 자장면 값만 지불하면 된다. 주유소를 이용할 때도 가입비를 별도로 내는 일 없이 주유한 기름 값만 지불하면 된다.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는 보통 한 번만 값을 지불하면 되는데, 왜 휴대전화 요금은 기본요금과 분당 이용료의 이원 체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일까?

휴대전화 회사는 기본요금과 분당 이용료의 ㉠이원 체제 전략, 즉 ‘이부가격제(二部價格制)’를 채택하고 있다. 이부가격제는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사려고 할 때, 우선적으로 그 권리에 상응하는 가치를 값으로 지불하고, 실제 상품을 구입할 때 그 사용량에 비례하여 또 값을 지불해야 하는 체제를 말한다. 이부가격제를 적용하면 휴대전화 회사는 소비자의 통화량과 관계없이 기본 이윤을 확보할 수 있다.

이부가격제를 적용하는 또 다른 예로 놀이 공원을 들 수 있다. 이전에는 놀이 공원에 갈 때 저렴한 입장료를 지불했고, 놀이 기구를 이용할 때마다 표를 구입했다. 그렇기 때문에 놀이 기구를 골라서 이용하여 사용료를 절약할 수 있었고, 구경만하고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도 가능했다. 그러나 요즘의 놀이 공원은 입장료를 이전보다 엄청나게 비싸게 하고 놀이 기구의 사용료를 상대적으로 낮게 했다. 게다가 ‘빅3’나 ‘빅5’나 하는 묶음표를 만들어 놀이 기구 이용자로 하여금 가격의 부담이 적은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다. 결국 놀이 공원의 가격 전략은 사용료를 낮추고 입장료를 높게 받는 이부가격제로 굳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놀이 공원의 입장료는 (㉡)에 해당한다. 그리고 입장료를 내고 들어 간 사람들이 놀이 기구를 이용할 때마다 내는 요금은 상품의 가격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모색은 계속되고 있다.

29. <보기>는 경제 서적의 차례이다. 위 글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은?

—<보 기>—
【 현대인을 위한 경제 】

- 제1장 : 경제의 역사 둘러보기 ①
- 제2장 : 국가 경제, 자세히 들여다보기 ②
- 제3장 : 최근 소비자 물가 동향 알아보기 ③
- 제4장 : 건전한 소비하기, 절약하는 생활하기 ④
- 제5장 : 경제, 생활 속 소재로 가까이 다가가기 ⑤

30. 위 글을 읽고 추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놀이 공원의 ‘빅3’나 ‘빅5’ 등의 묶음표는 이용자를 위한 가격제이다.
- ② 이부가격제는 이윤 극대화를 위해 기업이 채택할 수 있는 가격 제도이다.
- ③ 소비자 잉여의 크기는 구입한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감과 반비례한다.
- ④ 휴대전화 요금제는 기본요금과 분당 이용료가 비쌀수록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 ⑤ 가정으로 배달되는 우유를 한 달 동안 먹고 지불하는 값에는 이부가격제가 적용됐다.

31. ㉠의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은?

- ① ○○상점에서는 개업 기념으로 하루 동안 모든 물건을 30% 할인해 준다.
- ② ○○통닭집은 쿠폰 10장을 모으면 통닭 한 마리를 더 주는 판매 전략을 세웠다.
- ③ ○○주식회사는 판매량을 1.5배 이상 올린 직원에게 월 급여의 1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한다.
- ④ ○○백화점에서는 물건을 구입한 후 받은 추천권에 성명과 주소를 기입하면, 추천을 통해 소비자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 ⑤ ○○카메라 주식회사는 자사에서 생산한 즉석 사진기를 싸게 팔고, 즉석 필름을 비싸게 팔아 이익을 남기는 판매 전략을 펴고 있다.

32. ㉡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 ① 상품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요금
- ② 상품을 살 수 있는 최대한의 요금
- ③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상품을 살 수 있는 가격
- ④ 상품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
- ⑤ 다른 사람보다 먼저 상품을 사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라도 남원부에 사는 양생(梁生)이 ㉠일이 부모를 여의고는 아직 장가는 들지 아니하고 만복사의 동쪽 방에서 독신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 방문 밖에는 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그때 마침 봄을 맞이하여 꽃이 활짝 피어서 백옥나무에 은덩어리가 달려 있는 것 같았다.

양생은 언제나 달밤이면 그 나무 밑에 거닐면서 낭랑한 소리로 시를 읊었다.

(㉢)

시를 읊고 나자 별안간 공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대 좋은 배필을 얻고자 한다면 그 무엇 걱정할 것 있는뇨!”

양생은 이 소리를 듣고서 마음속으로 기뻐했다.

내일이 바로 3월 24일이었다. 이 고을 풍속에는 이 날이 되면 만복사에 가서 연등을 하고 복을 비는데, 청춘 남녀들이 많이 몰려가서 각기 그 소원을 비는 것이었다. 날이 저물어 저녁 불공이 끝나자, 사람들이 드문 틈을 타서 양생은 저포(樗蒲)를 소매 속에 품고 법당에 들어갔다. 그는 저포를 내어 불전에 던지기 전에 소원의 말씀을 드렸다.

“제가 오늘 부처님과 더불어 저포놀이를 할까 합니다. 만약 제가 지면 법연(法筵)을 차려서 치성드리고, 만약 부처님께서 지시면 아름다운 아가씨를 구하셔서 저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축원을 마치고 나서 저포를 던지니, 과연 소원대로 양생이 승리하였다. 그는 바로 불전에 꿇어앉아서 말씀을 올렸다.

“인연은 이미 정해졌사오니,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불좌(佛座) 아래에 숨어서 그 약속한 아름다운 아가씨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조금 있다가 한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는데, 나이는 열대여섯 살쯤 되어 보였다. 머리를 두 갈래로 땀았고 깨끗한 옷차림을 했는데, 얼굴과 태도가 마치 하늘의 선녀와 같았으며, 가만히 바라보니 엄연(儼然)하였다.

그녀는 고운 손으로 등잔에 기름을 따라 넣은 다음, 불을 켜고 향로에 향을 꽂고서 세 번 절하고는 무릎을 꿇고 앉아 슬피 탄식하며 말하였다.

㉣“인생이 박명(薄命)한들 어찌 이와 같을 수 있을까?”

하면서 품속에서 축원문을 꺼내어 불탁(佛卓) 위에 얹어 놓고 그 축원문을 읽는데 다음과 같았다.

“아무 고을 아무 마을에 사는 소녀 아무개는 외람됨을 무릅쓰고 부처님께 말씀드립니다. 지난 번 변방의 방비가 허물어져 왜구(倭寇)가 침입해 와 싸움은 눈앞에서 치열했고 봉화(烽火)는 여러 해를 계속되었습니다. 왜적이 집을 불살라 없애버리고 생민(生民)을 노략(擄掠)하매, 사람들이 동서로 달아나고 좌우로 도망해 가니, 친척과 동복(僮僕)들이 각기 서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연약한 소녀의 몸이오라 멀리 피난가지 못하고 깊은 규방에 들어 끝내 굳게 정절을 지키고 벗어난 행실을 저지르지 않고서 난리의 화를 면하였습니다. 그러하였으므로 어버이께서도 여자로서의 수절함이 그르지 않았다고 하여 한적한 곳으로 옮겨 초야(草野)에서 임시로 살게 해 주셨는데, 이미 3년이나 되었습니다. 가을 달밤과 꽃 피

는 봄을 상심으로 헛되이 지내고, 뜬구름 흐르는 물과 더불어 쓸쓸히 날을 보냈습니다. 쓸쓸한 골짜기에 유거(幽居)하면서 한평생의 박명을 한탄하였고, 꽃다운 밤을 혼자 보내면서 채란(彩鸞)의 외로운 춤을 저 홀로 슬퍼하였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고 달이 바뀌니 이제 혼백마저 사라져 없어졌고, 기나긴 여름 밤과 겨울 밤에는 간담이 찢어지고 창자마저 끊어질 듯합니다. 자비로운 부처님이시여! 이 몸을 가엾게 여기시어 각별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인간의 한평생은 태어나기 전부터 마련되어 있으며, 선악의 응보는 피할 수 없으므로 타고난 운명에 인연이 있을 것이오니, 늦지 않게 배필(配匹)을 점지하여 주시어 즐거움을 얻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읍니다.”

여인은 별기를 마치고 나서 소리 내어 흐느껴 울었다.

㉔ 이때 양생은 불좌 아래에서 여인의 자용(姿容)을 보고는 마음을 견잡을 수 없었으므로 뛰쳐나가 말을 건넸다.

“조금 전에 부처님께 글월을 올린 것은 무슨 일 때문이신지요?”

그는 여인이 부처님께 올린 글월을 읽고 난 뒤 얼굴에 기쁨을 가득 띤 채 다시 말했다.

“아가씨여! 그대는 대체 어떤 사람이십니까? 어찌하여 여기까지 혼자 오셨습니까?”

여인이 대답하였다.

“저는 역시 사람입니다. 대체 무슨 의심나는 일이 있으신지요? 당신께서는 다만 좋은 배필만 얻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름을 물으셔야 합니까? 그렇게 당황하실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뒷부분 줄거리> 양생은 처녀와 가연을 맺고 헤어진 후 처녀의 부모를 만나 자신이 3년 전에 죽은 그 집 딸과 인연을 맺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 뒤로 양생은 처녀를 그리워하며 지리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며 혼자 살았다고 한다.

- 김시습, 「만복사저포기」 -

*저포(襤褸) : 주사위 같은 것을 나무로 만들어 던져서 노는 놀이

33. ㉔에 들어갈 시로 적절한 것은?

- ① 한 그루의 꽃나무 외로움을 벗삼으니
휘영청 달 밝은 밤 시름도 하도 할사
푸른 꿈 홀로 누운 고요한 들창으로
들려오는 저 통소 소리 어느 임이 불고 있나
- ② 집 들레와 섬돌가에 온통 국화 심었더니
창문 열면 곳곳마다 국화꽃 만발했네
꽃더미 언덕 이뤄 황금색이 넘쳐나니
돈만 아는 부귀가라 남들이 욕하려나
- ③ 비 그친 강둑에는 풀빛 더 푸르고
임 보내는 남포엔 구슬픈 노래
대동강 물이 다 마를 때 있으랴
해마다 이별 눈물 더해지는데
- ④ 요사이 안부를 묻노니 어떠하시나요
달 비친 창문에 저의 한이 많습니다
꿈 속의 님에게 자취를 남기게 한다면
문 앞의 돌길에 반쯤은 모래가 되었을 걸

- ⑤ 봄 비 가늘어 방울 없더니
밤 되자 빗소리 귀에 들리네
눈 녹아 시냇물 불어날 테고
파릇파릇 풀썩도 돌아날 거야

34. 축원문(축원문)에 드러난 여인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부처님께 하소연하면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 ② 부모님께서는 나의 생사를 모르고 계실 거야.
- ③ 전쟁 때문에 내 삶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었어.
- ④ 여러 해를 홀로 지내니 외로워서 견딜 수 없어.
- ⑤ 부부 인연은 하늘이 정한다니 내 임도 어딘가 있을 거야.

35. ㉔~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㉔ : ‘양생’에 대한 서술자의 부정적 시각이 나타난다.
- ② ㉔ : 자연적 배경과 ‘양생’이 처한 상황이 상응한다.
- ③ ㉔ :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여 내적 갈등이 심화된다.
- ④ ㉔ : 앞에 나온 ‘여인’의 외양과 발화 내용으로 보아 남다른 사연이 있음을 짐작케 한다.
- ⑤ ㉔ : 행동 묘사를 통해 ‘양생’이 소심한 성격임을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

36. 위 글과 <보기>의 글을 연관지어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영국 작가 조앤 K.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는 환상성을 갖고 있다. 마법사를 꿈꾸던 고아 소년 해리포터는 친척집에 맡겨져 천대받다가 마법 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해리포터는 그곳에서 그를 죽이려는 마법사 볼드모트에 대항하여 싸우면서 갖가지 모험을 겪고, 결국 마법사 세계의 영웅이 된다. 해마다 세계의 어린이는 물론이고 어른들조차 해리포터 시리즈가 나올 때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마법을 소재로 한 환상적 이야기인 이 『해리포터 시리즈』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사실감에 있다. 현대의 런던, 학교, 학생 등의 사실적인 이야기 요소는 독자에게 혹시 옆집의 평범한 아이가 마법사일지도 모른다는 재미있는 상상을 제공한다.

- ① 두 주인공은 작품 속에서 자신의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군.
- ② 선악의 대립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제가 같다고 할 수 있겠어.
- ③ 동서고금을 두고 환상적인 이야기는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를 끄나 봐.
- ④ 둘 다 실재하는 공간을 배경으로 한 것은 사실감을 높이기 위해서겠군.
- ⑤ 두 작품 모두 현실 세계와 비현실 세계를 소통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37~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은 날씨가 참 맑군요!”에서 ‘맑군요’를 어떻게 소리 내야 할까? [막꾸뇨], [말꾸뇨] 가운데 하나일 게다. 표준어의 발음 문제를 담당하는 어문 규정인 표준 발음법에 따르면 [말꾸뇨]만이 맞다. 위 문장에서 ‘맑군요’라는 올바른 표기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그 표준 발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인다. 더 나아가 표준 발음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표준 발음법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의 발음을 표준어의 실제 발음으로 여기고서 일단 이를 따르도록 원칙을 정한 것이다. 예컨대 ‘값 [價]’에 대하여 ‘값, 값이, 값을, 값에’ 등은 [갑, 갑씨, 갑쓸, 갑씨] 등으로 서울 말에서 발음되는데, 바로 이러한 실제 발음에 따라 표준 발음을 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 서울말에서조차 실제의 발음에서는 여러 형태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한 경우에는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표준 발음을 정한다는 조건을 이어서 제시하였다. 예컨대 서울의 어떤 젊은이나 어린이는 소리의 길이를 구별하지 않고서 ‘밤 [夜]’과 ‘밤 [栗]’을 모두 짧게 발음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장년층 이상에서는 소리의 길이를 인식하면서 구별하여 발음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소리의 높이나 길이를 구별해 온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표준 발음법에 소리의 길이에 대한 규정을 포함시키게 하였다.

국어의 전통성을 고려하여 정한다는 조건 이외에 다시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이것은 한글 맞춤법의 규정에서 어법에 맞춘다는 것과 맞먹는 조건이다. 말하자면, 국어의 규칙 내지는 법칙에 따라서 표준 발음을 합리적으로 정한다는 뜻이다. 즉 ‘여름’의 앞에 접사 ‘한-’을 붙여 ㉠‘한여름’이 될 때 그 발음은 [한녀름]이다. 이런 현상은 ‘숨이불[숨 : 나불, 꽃잎[꽃넙], 국민윤리[국민놀리]’처럼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요소의 끝이 자음이 되고 뒤 요소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 [니]를 첨가하여 발음하는 규칙에 따르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 사람들 중에 ‘한여름[한녀름]’ 대신 [하녀름]이라고 발음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규칙에 어긋나는 비합리적 발음이어서 표준 발음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통성과 합리성만으로 표준 발음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맛있다’의 합리적인 발음은 [마딤파]이다. ‘맛있다’를 생각해 보라. 그러나 이제 [마딤파]라는 발음을 주변에서 듣기가 오히려 어렵다. 대신 [마싹파]가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관용’이라고 일컬으며, ㉡현실에서 고착된 관용은 추가로 인정하고 있다.

지구상에서 표준 발음법이 존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표기와 발음 사이의 괴리가 아주 작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영어처럼 단어들의 철자를 일일이 외우지 않아도 되니, 우리 민족은 어문 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축복받은 셈이다.

37. 위 글에 사용된 설명 방식을 <보기>에서 고르면?

< 보 기 >

- ㄱ. 질문을 던져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 ㄴ. 사례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ㄷ. 설명 대상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 ㄹ. 비유적인 예를 들어 문제를 제기하고 일반화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38. 위 글을 토대로 다음의 자료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표] 장·단음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김 : 밥	8%	12%	17%	42%	47%
김밥	92%	88%	83%	58%	53%
선 : 납선 : 녀	9%	18%	22%	36%	42%
선납선녀	91%	82%	78%	64%	58%

(장음이 표준 발음임)

- ① 연령이 낮을수록 단음을 구사하는 경향이 있군.
- ② 응답자들이 대체로 장음보다는 단음을 많이 구사하고 있군.
- ③ 응답자들의 연령이 낮을수록 국어의 합리성에 따라 발음하고 있군.
- ④ 20, 30대에 비해 50, 60대가 국어의 전통성에 따라 발음하는 비율이 높군.
- ⑤ 언중의 현실음을 고려한다면 [표]의 장음인 두 단어는 단음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겠군.

39. ㉠의 ‘한-’과 그 쓰임이 같은 것은?

	뜻	사례
①	바깥	한데 앉아서 음지 걱정한다.
②	한창이다	시험 기간이라 한밤중까지 공부했다.
③	같다	하숙생들과 한집안처럼 친하게 지낸다.
④	크다	캄캄한 골목길을 벗어나 한길로 나왔다.
⑤	일시에	전망대에 오르니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다.

40. ㉠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멋있다’는 그 받침소리를 연음하면, [머뎃파]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머싣파]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허용하여 발음한다.
- ② 용언 어간의 받침 ‘ㄴ(ㄴ), ㄷ(ㄷ)’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싣고[싣 : 꼬]’, ‘더듬지[더듬찌]’처럼 된소리로 발음한다.
- ③ 받침 ‘ㄲ, ㅋ’은 ‘박[박]’, ‘부엌[부엌]’처럼 받침 ‘ㄱ’과 같이 [ㄱ]으로 발음하고, 받침 ‘ㅅ, ㅈ’은 ‘낫[낫], 낫[낫]’처럼 받침 ‘ㄷ’과 같이 [ㄷ]으로 발음한다.
- ④ 받침 ‘ㄷ, ㅌ(ㅌ)’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뀌어서 ‘곧이듣다[고지듣파]’, ‘땀받이[땀바지]’처럼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⑤ 긴소리를 가진 음절이라도, 단음절인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는 ‘감다[감 : 파] — 감으니[가쁘니]’, ‘신다[싣 : 파] — 신어[싣너]’로 짧게 발음한다.

수축해서 변형된 목제품을 본래 형태로 상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수축한 목재를 팽윤*시켜서 복원을 시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고 수축한 정도와 나무 종류에 따라 거의 완전하게 본래의 형태를 회복시킨 예도 있다. 독일 국립해양박물관의 호프만은 수중에서 발굴한 후에 수축 변형된 중세의 목제품 고블릿(goblet, 굽이 높은 와인 잔)의 형상을 복원하고 보존 처리하는 데 성공했는데 그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목재는 90~180℃의 증기로 열을 가하면 유연하게 되며 뜨거운 상태에서 구부린 후 식히면 그 형상이 유지된다. 이것을 알칼리 용액에 넣어 끓이면 팽윤된다. 그러나 형상은 회복되었어도 조금만 부주의하게 취급하면 본래의 형태가 붕괴되어 버릴 정도로 약한 상태이다. 그래서 원래의 형상에 알맞게 형틀을 만들고 고블릿에 붙여서 지지하여 보강한다. 이 상태에서 제품에 함유된 수분을 전부 알코올로 치환한다. 그 다음 알코올에 용해시킨 폴리에틸렌 글리콜(PEG)을 스며들게 하여 강화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폴리에틸렌글리콜이 스며든 고블릿을 먼저 만든 형틀에 따라 형태를 정비하고 또한 파편도 제 위치에 찾아 넣어 고블릿으로서의 형상을 복원한다. 그리고 이것을 진공 동결 건조시킨다. 이 때 고블릿의 결손부에 페놀 수지제의 미소구체*와 에폭시 수지를 고루 섞이도록 개어서 색상을 넣은 접합 물질을 메워 넣어 정형하면 복원이 완료된다.

*팽윤 : 고분자 화합물이 용매를 흡수하여 부피가 늘어나는 일
*미소구체 : 공처럼 내부가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 미세한 분말

[41~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유물은 긴 세월을 거치면서 외부 조건에 의해 그 상태가 쉽게 훼손되기 때문에 주의해서 다루어야만 한다. 목제품, 섬유류, 가죽 등의 유기질 유물은 건조한 상태와 젖어 있는 상태가 반복되는 환경에서는 토기나 석기 등에 비해서 쉽게 분해되지만, 늘 건조하거나 늘 젖어 있는 환경에서는 비교적 양호하게 보존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유기질 유물은 대부분 이와 같은 환경에서 발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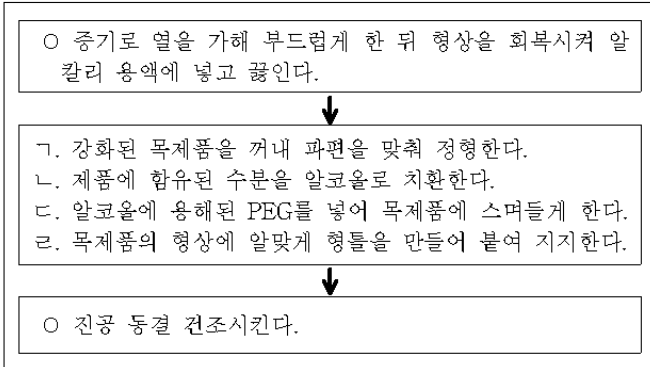
현존하는 유기질 유물 중 목재는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 하나는 고건축 재료로 사용된 건조한 목재이고, 다른 하나는 오랜 기간 물속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과다하게 물을 함유한 목재이다. 물을 많이 함유한 목재를 수침출토목재(水浸出土木材)라 하는데 오랫동안 물에 잠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목재 속의 수지 성분이나 셀룰로오스 성분의 대부분이 빠져 나가 목재로서의 강도를 잃어버린 상태이다.

대체로 살아 있는 수목의 함유율이 100% 내외인데 비해 수침출토목재의 함유율은 침엽수가 100%~500%, 활엽수가 300%~800%이다. 수침출토목재는 과다하게 함유한 수분에 의해서 겨우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수침출토목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 없이 방치하면 건조해서 갈라지고 수축하여 본래의 형태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수침출토목재는 발굴 즉시 습한 조건을 유지시켜야 하고, 항구적인 보존 처리를 시행하기까지 건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41.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변화가 심한 환경에서 유물은 쉽게 훼손된다.
- ② 수침출토목재는 발굴한 뒤 곧바로 수분을 제거하여 건조시켜야 한다.
- ③ 수지 성분이나 셀룰로오스 성분이 빠진 목재는 약하고 힘이 없는 상태이다.
- ④ 건조한 상태가 계속된 환경에서 발견된 유기질 유물은 비교적 상태가 양호하다.
- ⑤ 수침출토목재 중 활엽수 재질로 된 유물은 침엽수 재질 유물보다 함유율이 높은 편이다.

42. 위 글을 토대로 고블릿의 복원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그 순서로 적절한 것은?



- ① ㄴ → ㄱ → ㄹ → ㄷ
- ② ㄴ → ㄷ → ㄱ → ㄹ
- ③ ㄷ → ㄱ → ㄹ → ㄴ
- ④ ㄹ → ㄴ → ㄷ → ㄱ
- ⑤ ㄹ → ㄷ → ㄱ → ㄴ

43. 위 글을 배운 학생이 <보기>의 자료를 접한 뒤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975년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발견된 14세기 무역선인 ‘신안선’이 29년 만에 복원되어 일반에 공개되었다.

신안선은 발견 당시 오른쪽으로 15도 가량 누워 개펄에 묻혀 있었는데 침몰된 뒤 700여 년 동안 물살과 바다 생물의 영향으로 배의 왼쪽 등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인양된 배 조각은 먼저 민물에 담가 소금기를 빼고 이물질을 제거했다. 이어 나무 속의 물기를 빼내고 PEG를 투입했다. 이 작업은 약품의 농도를 서서히 높여야 하기 때문에 90개월이란 시간이 걸렸다. 그 뒤 경화 처리가 끝난 조각들을 맞춰 남아 있는 부분만 복원하고 유실된 부분은 배의 윤곽만 프레임으로 연장하여 복원을 끝냈다.

- ① 신안선 복원에서 PEG를 투입하는 것은 목재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였군.
- ② 바다 속에서 인양된 신안선의 목재는 수지 성분이 대부분 빠진 상태였군.
- ③ 신안선은 유실된 부분이 많아 제작 당시의 모습을 완벽하게 재현하기는 어려웠군.
- ④ 신안선을 복원할 때는 고블릿을 복원할 때와는 달리 증기를 쐬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군.
- ⑤ 신안선에서 소금기를 빼는 과정은 고블릿에서 수분을 알코올로 치환하는 과정에 해당하겠군.

[44~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국진 : 형님은 계시죠, 방에?
 국서 : (문을 열고 나오며) 어찌 됐니, 국진이? 재판 날짜는 언제라던?
 국진 : ㉠재판은 안 걸고 왔어요. 아만 생각해도 재판이 걸린 댕자 우리한테 이로우 게 없겠습니다.
 국서 : 그게 무슨 소린가?
 국진 : 좌우간 대서소에 가서 이번 일이 일어난 내력을 제가 자세히 말했지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 시비곡절을 잘 따져 주는데, 그럴 법하더군요. 즉, 거기서는 이렇게 말합디다. 지금 재판을 걸기만 한다면 우리 소원대로 우리 집 소는 제격 찾아낼 수가 있답니다.
 국서 : ㉡아, 그렇고 말고. 단번에 찾아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국진 : 하지만 뒤통이 까다롭답니다. 그때에는 논임자 편에서 그저 있지는 않을 거라니까. 만일 그쪽에서 받으려는 묵은 도지*를 두고 집행을 한번 텅 부치는 날이면 참 큰일 난대요. 우리 이 집이며 집터 같은 것은 단번에 날아가 버리고 우리는 그야말로 화전이나 파먹지 않으면 안 될 신세가 돼 버릴 거래요. 그리고 소 한 마리 찾아내는 데 경치게도 웬 비용은 그렇게 듭니까? 우선 대서비 없어서는 안 될 거고, 그 외에 읍내에 왔다갔다하는 차비며 증인 서 주는 동리 사람들한테 그래도 막걸리잔은 받아 줘야죠……. 이렇게 잔잔한 비용을 통 따져 보는 데 되레 재판 한번 거는 비용이 소값보다 많을 것 같습니다.
 국서 : ㉢그러면 혹 때려 갔다가 되레 혹 불이고 오는 짝이 되게요?
 국진 : 그러기에 말입니다. 나도 맨 첫 번은 멋도 모르고 그저 재판만 걸어 줍시다 하고 조르다가 나중에 이런 말을 듣고 놀랐어요. 그리고 손해 가는 것은 어디 그것뿐입디까? 결국 논까지 떼이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우리는 뭘 갈아 먹고 삽니까?
 국서 : 그렇지만 이 사람! 그 소의 사촌의 아버지의 큰형은 도장관 나오리게 일등상을 받지 않았나? 그런 내력 있는 소를 그저 빼앗기고 있어! 원 사람이 분해 죽을 일이야! 그리고 이 사람 동리서는 모두 증인으로 법정에서 나서 주려고 그런다. 아까 문 서방도 나서겠다고 그랬어.
 국진 : 그렇지만은 형님, 더구나 이번 일만은 성미대로 했다가는 큰일나겠습니다.
 국서 : 그래서 읍에서 넌 어찌고 왔어?
 국진 : 논임자를 찾아갔지요. 그래 그만 거기서 화해를 붙여 버렸습니다.
 국서 : 화해를?
 국진 : 네. 논임자 편에서 팔아먹은 소에 대해서는 우리는 앞으로 이의 없기로 하고, 그 대신 그 쪽에서는 우리가 갚아야 할 도지를 안 받기로 했습니다.
 국서 : ㉣그러니까 소하고 도지를 서로 탕감해 버린 셈이로구나.

국진 : 그리고 게다가 또 내년부터 여태 부치던 논을 우리가 도로 부치게 했어요.

처 : 아주 그렇게 화해가 됐수?

국진 : “응” 하고 논임자가 시원스럽게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도장까지 받아 왔지요.

국서 : (문서를 받아 보고) 이런 빌어먹을! 그 내력 있는 소를 그만 빼앗기고! 원 천하에! 그러면 이 종이 조각 한 장으로 나는 다시 두 말 못하게 된단 말이지?

처 : 그 대신 도지를 갚았으니 피장파장이지요. 무엇보다도 도로 논을 얻어 부치게 된 게 천만다행이구려. 농사꾼이란 그 저 손바닥 같은 거라도 파먹을 땅땸기가 있어야 살지요. 밭을 부칠 데가 있어야 살지요.

국서 : (울며) 에 분해! 그럼 우리 소는 그 색깔 좋은 소는 어떡한담! 울음소리도 예쁘고 앞가슴이 짝 벌어지고 해서 이 동리에서는 일등 가는 손데 그만 그걸 빼앗기고 만담. 에이 분해. 우리 집은 그만 망했어……. 소 잃고 잘된 놈의 집안은 없어……. (울고 방으로 들어간다.)

처 : 오늘 온종일 읊에 가서 수고해 온 보람 없이 왜 야단만 해요……. 좀 울지 말우…….

(이웃 젊은 사람 황급히 뛰어 들어온다.)

젊은 사람 : ㉠말뚱 어머니! 말뚱 어머니! 큰일났수! 큰일이야!

국서 : 이것 뭐야? 어찌 된 일이야!

젊은 사람 : (우편 하늘을 가리키며) 저것 보세요! 막…… 막 불이 났어요. 불이야요.

국서 : (방에서 나오며) 불이라니?

젊은 사람 : 신작로 돌다리 가에 있는 맥의 논임자의 곳간 알지요? 거기서 불이 붙었어요. 말뚱이가 지른 거야.

국서 : 말뚱이가?

처 : 저런! 저 욕시랄 놈이! 저 똥판지 같은 놈이 기어코 저지르고 말았구나. 에그 이 일을 어찌나!

젊은 사람 : 얼른 가세요.

국진 : 대관절 말뚱이는 어딴어? 말뚱이는 말야?

젊은 사람 : 잡혔어요. 주재소 송금청 나리한테 붙들려 갔죠. 불을 질러 놓고도 말뚱이는 도망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장승같이 꼭 서 있었어요. 그래서 잡혔지요.

(젊은 사람들 퇴장, 국진이 같이—)

처 : 저런 고집통이 봐! 에그 잘 잡혀 갔다. 그놈이 장가를 못가니까 심술이 나서……. 그저 눈이 뒤집혀진 모양이야. 바로 미쳤어……. 미쳐……. (퇴장)

- 유치진, 「소」 -

*도지 : 남의 논밭을 빌려서 부치고 그 대가로 해마다 내는 곡식

44. 위 글을 읽고 추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주의 횡포로부터 소작농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있었다.
- ② 관공서의 허락을 받지 않은 소의 매매는 불법으로 간주되었다.
- ③ 논밭 경작지의 확대로 농민들은 다양한 수입원을 갖게 되었다.
- ④ 농민들은 소작할 땅을 구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대책을 강구했다.
- ⑤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농민들이 법적 대응을 하기란 쉽지 않았다.

45. 제목 ‘소’를 중심으로 위 글을 파악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서’에게 소는 재산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 ② ‘국진’은 ‘국서’와 ‘논임자’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고 있다.
- ③ ‘국서’와 ‘논임자’의 갈등은 계층 간의 갈등으로 볼 수 있다.
- ④ ‘국진’과 ‘말뚱이’는 소의 소유권을 두고 ‘논임자’와 대립한다.
- ⑤ ‘처’는 소로 인한 ‘국서’와 ‘논임자’의 갈등이 일단락지어진 것만도 다행으로 여긴다.

46. ‘국서’에 대한 ‘국진’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상대의 허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 ② 우회적인 말을 사용해서 논점을 흐리고 있다.
- ③ 상황 논리를 앞세워 타협이 필요함을 설득하고 있다.
- ④ 환심을 얻으려고 상대방의 마음에 드는 말을 하고 있다.
- ⑤ 상대방을 은근히 조롱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47. ㉠~㉤에 대해 연출자가 연기자에게 요구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국진’은 심각한 표정이 드러나도록 하세요.
- ② ㉡ ‘국서’는 무릎을 탁 치는 행동을 하세요.
- ③ ㉢ ‘처’는 어처구니없다는 듯이 말하세요.
- ④ ㉣ ‘국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리세요.
- ⑤ ㉤ ‘젊은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다급하게 말하세요.

[48~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진관에서 사진을 뽑으면서 사진이 너무 밝게 나왔다(노출 과다)거나 너무 어둡게 나왔다(노출 부족)는 말을 종종 듣는다. 사진에서 노출이라는 말은 원래 필름에 빛을 노출시킨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단순히 빛을 노출시킨다는 의미보다는 어느 정도의 양으로 빛을 노출시킬 것이냐를 의미한다. 빛의 노출 정도에 따라 사진의 이미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같은 사진이라도 노출에 따라 느낌은 상당히 차이가 난다. 노출을 증가시킨 부분이 그렇지 않은 부분보다 섬세하게 드러나서 그 부분의 의미가 풍부하게 살아나기 때문이다.

어느 봄날에 자연을 배경으로 찍은 가족 사진을 생각해 보자. 같은 사진이라도 가족의 모습에 노출을 증가시킨 사진은 그 부분이 배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밝게 보이므로 가족의 모습이 강조되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봄날의 풍경이 강조될 것이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노출 정도를 조절함으로써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노출의 개념을 좀 더 확대시켜 보자. 미국의 사진작가 어빙 펜(Irving Penn)은 1972년에 담배꽂초를 찍은 연작 사진을 발표했다. 어빙 펜은 일상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하찮고 때로는 귀찮기도 한 담배꽂초를 대형 카메라를 사용하여 근접 촬영했다. 비록 밝히거나 어둡게 처리할 여지가 많이 있었어도 몸통과 필터가 구분되는 기다란 모습과 거칠게 빠져나온 담배 재 등은 굳이 제목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담배꽂초임을 말해 준다. 그러나 사진 속의 담배꽂초는 단순한 담배꽂초의 모습으로만 보이지 않는다. ㉠<담배꽂초 No.17>은 거리에서



<담배꽂초 No.17>

밝혀 죽은 벌레나 현미경을 통해 바라본 미생물의 모습처럼 보인다. 무심히 밟고 지나칠 하찮은 담배꽂초가 땅바닥에서 사진 안으로 들어왔을 때, 사진 속의 담배꽂초는 본래 지나고 있던 성질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어빙 펜은 무심코 지나치는 것에 관심을 집중시켜 새로운 발견으로서의 존재를 노출시켰던 것이다.

새로운 이미지의 발견은 노출이라는 특성이 만들어 내는 사진만의 독특한 표현법이다. 어빙 펜은 담배꽂초 사진을 통해 ㉡담배꽂초 그 자체가 아니라 ㉢색다른 이미지를 발견하려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진 속에 들어있는 담배꽂초는 사진작가의 의도를 상징한다.

㉣노출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발견하고 있는 사진들은 상징화된 '무엇'을 표현한 것이어서 어떤 것과 닮아 있거나 아니면 무엇인가를 연상하게 한다. 그러므로 사진을 감상하면서 사진작가가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을 찾아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48. 위 글을 토대로 강의 계획서를 작성해 보았다.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단계	강 의 계 획
도입	○ 노출에 따라 이미지가 달라지는 사진을 제시하여 흥미를 유발할 것.....㉠
전개	○ 사진기 구조와 조작 방법을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 ○ 사진에서의 노출 개념을 사례로 들어 설명할 것㉢ ○ 어빙 펜의 <담배꽂초 No.17>을 슬라이드로 보여 줄 것㉣
정리	○ 사진 감상 시 작가가 의도한 바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마무리할 것㉤

49. 글쓴이가 ㉠을 제시한 의도로 적절한 것은?

- ① 사진의 사실성과 기록성을 강조하기 위해
- ② 담배꽂초로 변형되는 구성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 ③ 사진작가의 새로운 이미지 발견을 강조하기 위해
- ④ 근접 촬영할 때의 독특한 표현법을 설명하기 위해
- ⑤ 사진작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50. ㉡~㉣를 <보기>에 적용하여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香氣)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언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 김춘수, 「꽃」 -

- ① '하나의 몸짓'은 ㉡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
- ② '그'가 '꽃'이 된 것은 '그'를 ㉢라고 인식한 거야.
- ③ ㉣는 '꽃'이 되기 위해서 '이름'을 불러 주는 행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
- ④ '나'와 '너'의 관계는 ㉡와 ㉢의 관계와 일치하는군.
- ⑤ '우리'가 '하나의 눈짓'이 되기 위해서는 ㉡에서 ㉢를 발견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